

# 추석 명절 '종합대책' 마련

### 군산시, 시민들 편안한 명절되도록 안전·민생경제 지원

군산시가 추석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 및 민생경제 지원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추진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4차 유행이 최근 다시 증가하며 명절 연휴기간 동안 안전 및 민생경제 지원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추진해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도록 할 계획이다.

또 13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거리 두기 수칙 위반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 할 예정이며 격리자 발달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보건소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집단 감염 발생 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시설 대안방 공사현장, 수산물종합센터 및 어선 종교시설, 주요 관광지 및 유원 시설 위생 및 문화콘텐츠 업소 대중교통 등 관련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는 추모관 예약제를 실시해 1일 최대 1천명 및 동반인원인원을 제한하고 추석당일인 21일은 휴관을 실시한다.

물가안정 및 민생경제,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안정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기존 생활물가 조사와 더불어 추석 제수용품 물가 조사를 실시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과 나중대 의원이 13일 군산해경서장에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 수여

###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나중대 의원 재향경우회 조례제정 등 기여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과 나중대 의원이 13일 군산해경서장에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김영일 부의장과 나중대 의원은 지난 제238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군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해 지역사회 내 질서유지 합양과 범죄예방 협력활동을 통해 시민 안전증진과 시장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조례안에는 범죄예방 캠페인 홍보,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시와

재향경우회가 협력하여 범죄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앞장서 왔다.

김영일 부의장과 나중대 의원은 "재향경우회는 그동안 교통안전 보조활동과 약자보호를 위한 치안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조례를 통해 군산시의 치안과 사회질서를 위해 재향경우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 '추석명절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 페이퍼코리아 백미 10kg 357포기탁 등 이웃돕기 이어져

군산시에 기업과 단체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잇따랐다.



군산시에 기업과 단체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잇따랐다.

13일, 군산을 대표하는 한보기업 페이퍼코리아(주)(대표이사 권옥상)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올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군산시에 백미(10kg) 357포(1,000만원 상당)를 기탁해 지역사회 나눔에 보탬을 보이고 있다

페이퍼코리아(주) 권옥상 대표이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군산을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의 어려움

을 함께 해결하고 상생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서부발전(주) 군산발전본부(본부장 황우선)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은누리상품권 900만원 상당을 기탁했다.

군산발전본부는 관내 에너지 취약세대의 전기요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저소득 세대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성금·품 지원에 앞장서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눔을 실천해오는 등 이웃사랑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같은 날 (사)광도대장애인협회(회장 하태복)에서 "회원들의 참학과 정성을 모아 희망 나눔실천에 동참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서 회원들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시, 추석명절 대비 물가안정 집중 관리 나서

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22일까지 물가안정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물가안정에 집중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물가대책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상공인지원과에 물가대책반을 설치해 각 부서와 연계, 물가안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생활필수품목 26개와 농축수산물 주요 성수품 16개 품목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정하고 이들 품목

의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특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성수품 가격 미표시, 원산지 표시 불이행 등 부정 상행위를 집중점검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투입해 추석 성수품목을 정기적으로 조사한 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군산사랑 시민 서포터즈'를 활용한 SNS 홍보, 물가안정에 기

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홍보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 회원들과 함께 추석명절 전통시장 이용하기 및 성수용품 부당한 가격인상 자체에 관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중현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의 가격 인상으로 서민들이 아중고를 겪지 않도록 내실 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집중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 군산시보건소, 어린이·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군산시보건소는 2021년도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14일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절한 면역 획득을 위해 생애 첫 접종 대상 어린이(2회접종 대상자)는 9월 중 1회 접종 후 4주 간격으로 10월 중에 2차 접종을 완료하면 되며, 그 외 어린이(1회접종 대상자)는 10월 14일부터 접종하면 된다. 보건소 어린이 접종은 관리번호발급

대상자(주민등록번호 없는 내국인,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장기체류자)만 실시하며, 임신부는 주수 상관없이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임신진단서 등)를 제시하면 된다.

주수지에 관계없이 지정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보건소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산=한경봉 기자

## 익산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최우수상

익산시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동체 강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시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시는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직접 만든다"를 주제로 경진대회에 참여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민·관·학이 협력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진 시민주도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제안하고 이를 정책화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청소년 다이로움', '청년 희망네트워크', '시민 아카데미' 등 민·관·학 공동체 활동과 문화화, '삼삼오오' 등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으로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해 오고 있다. /뉴시스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대상·최우수상 수상

군산시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인 효림복지센터, 군산시니어클럽이 2020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평가에서 대상 및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한 전국 1,2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적정성, 추진성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량·정성평가방식으로 실시됐다.

수행기관(효림 시니어)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내실화 도모와 끊임없는 혁신시책을 개발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노인일자리를 꾸려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고영만 기자

### 익산시, 문화마을29 시민제안 공모전 23일까지 개최

익산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일환으로 '문화마을29 시민제안 공모전'을 진행한다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 스스로 마을 문화를 만들어 공동체를 형성하는 주민참여 문화 플랫폼 확산을 위해 추진된다.

공모에서는 최대 10팀을 선발해 사업별 최대 250만원 이내의 지원금과 교육 컨설팅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공모전은 본인이 사는 마을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만 3인 이상의 팀을 꾸려야 하며 다양성 사업형 문화공간형, 문제해결형, 마을사 탐구형 등 총 4가지 유형 가운데 한 가지를 신청해야 한다.

응모는 오는 23일까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 관계자는 "문화마을29를 통해 주민 스스로 마을과 동네를 더 깊이 이해하고 나누는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